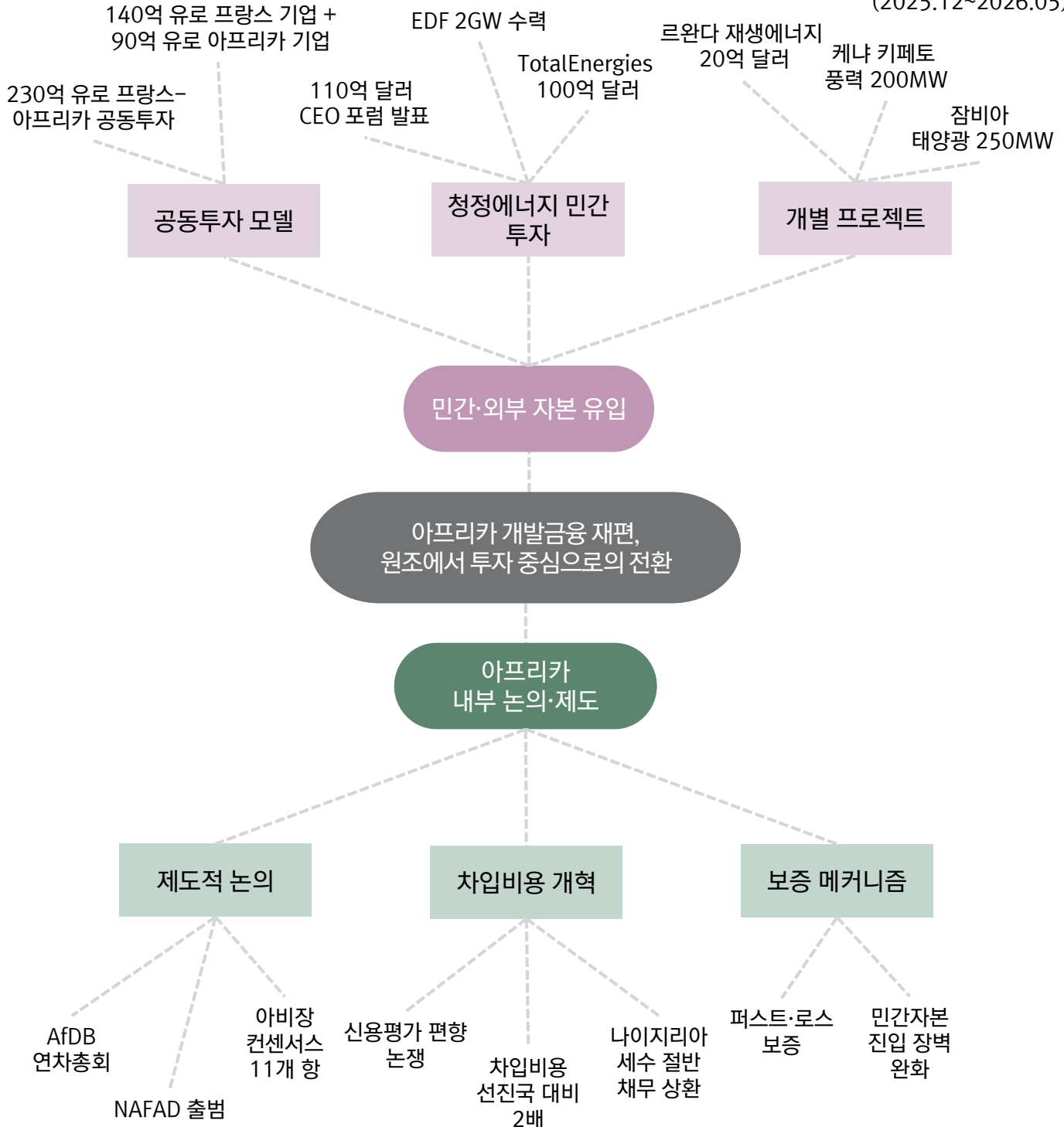


빅데이터로 보는

아프리카 개발금융 재편, 원조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

(*) 아프리카 개발금융 관련 이슈 언급량 412건
(2025.12~2026.05)



아프리카 개발금융 재편, 원조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

〈핵심 요지〉

- 2026년 5월 아프리카 개발금융 논의는 원조 중심의 자원 조달만으로는 대륙의 개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연차총회에서 ‘분절화된 세계에서 아프리카 개발금융의 대규모 동원’을 핵심 주제로 제시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구조적 산업전환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신아프리카 개발금융 체계(NAFAD)와 아비장 컨센서스에서는 아프리카 내부의 저축과 자본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 혼합금융과 보증기구를 활용해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실제 신용 위험보다 높은 위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부채 상환 부담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 한편 아프리카 포워드 서밋에서는 230억 유로 규모의 공동투자와 11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민간자본이 원조를 보완하며 실제 개발사업에 진입하는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평가 체계 개혁, 퍼스트-로스 보증의 작동 여부, 아프리카 내부 자본시장 심화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2026년 5월의 주요 회의와 투자 발표는 아프리카 개발금융이 원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자원·민간자본·공동금융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fDB 연차총회와 아프리카 개발자금 부족 문제

연간 4,000억 달러 규모의 개발자금 부족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은 2026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콩고공화국(Republic of the Congo) 브라자빌의 킨텔레 국제컨퍼런스센터(Kintélé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에서 제61차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분절화된 세계에서 아프리카 개발금융의 대규모 동원(Mobilising Africa's Development Financing at Scale in a Fragmented World)'이다.

AfDB가 제시한 수치는 구조적 위기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준다. 아프리카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 3,0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며, 인프라 분야만으로도 연간 1,840억~2,210억 달러의 재원이 요구된다. 기후 재원 격차는 연간 2,134억 달러에 달하고, 구조적 산업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4,022억 달러가 별도로 필요하다. AfDB는 자체 승인 규모만으로는 아프리카 전체 개발재원 수요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공동재원조달**과 민간자본 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디 울드 타(Sidi Ould Tah) AfDB 총재 역시 AfDB 단독으로는 대륙의 개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이 2030년까지 빈곤, 보건, 교육, 기후변화, 불평등 등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17개 국제 목표

** 공동재원조달: 하나의 개발사업에 여러 금융기관, 정부, 민간 투자자가 함께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

이 격차를 심화시키는 외적 요인은 지정학적 분절화의 가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주요 선진국들이 군사·경제적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해 자원을 재배분하면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도 위축 압력이 커지고 있다. 상이한 발전 모델을 앞세운 강대국 간 경쟁은 개발 협력 프레임워크를 분절화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관된 정책 설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총회 주제에 담긴 '분절화된 세계'라는 표현은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현재 아프리카 개발 자원 환경의 실질적 진단이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원조 자금 또는 기술협력

아프리카 주도의 개발자금 조달 구상

이번 총회는 AfDB의 연례 보고 기능을 넘어, 4월 이미 가시화된 새로운 개발금융 체계 개편 논의가 공식 의제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점은 2026년 4월 9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된 신아프리카 개발금융 체계(NAFAD: New African Financial Architecture for Development)* 자문 대화였다.

* 신아프리카 개발금융 체계(NAFAD: New African Financial Architecture for Development): 아프리카의 개발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저축, 자본시장, 보증기구, 혼합금융 등을 결합하려는 AfDB 주도의 개발금융 체계 개편 구상

이 대화에는 아프리카 중앙은행 총재, 국부펀드 임원, 지역 상업은행, 개발금융기관, 사모펀드 등 아프리카 금융 부문을 망라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11개 항의 '아비장 컨센서스(Abidjan Consensus)'를 채택했다. 컨센서스의 핵심은 아프리카의 방대한 국내 저축을 대륙 내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역내 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며, 혼합금융·기후금융·디지털금융 등 혁신적 금융 모델을 적극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니비사우 출신 경제학자 카를로스 로페스(Carlos Lopes) 교수는 낮은 금리의 개발자금만으로는 아프리카가 추진하려는 대규모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NAFAD는 시디 울드 타 총재의 4대 전략 기조(Four Cardinal Points)*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개발금융 체계 개편 구상이다. 2025년 5월 76% 이상의 득표율로 선출된 울드 타 총재는 아프리카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외부 자원 의존의 한계를 넘어설 유일한 경로라는 인식을 전략의 중심에 놓고 있다. 아비장 컨센서스가 채택한 원칙들은 이번 브라자빌 총회 총재 보고 및 총재와 회원국 재무·금융당국 대표들 간 대화에서 본격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자원 격차의 진단을 넘어, 아프리카 스스로 금융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논의를 공식화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4대 전략 기조(Four Cardinal Points): 시디 울드 타 AfDB 총재가 제시한 전략 방향으로, 자본 접근성 확대,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 개혁, 인구구조 변화의 성장동력화, 기후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

신용위험 평가와 차입비용 개혁 요구 부상

높은 금리 부담과 아프리카의 차입 불이익

아프리카 개발 자원 격차의 이면에는 단순한 자금 부족 이상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실제 신용 위험보다 높은 위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차입 비용이 구조적으로 높게 고착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2026년 5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 포워드 서밋(Africa Forward Summit)은 이 문제를 국제 의제로 끌어올린 핵심 계기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차입 비용이 선진국보다 두 배 높다고 지적하며, 이를 아프리카의 경제 역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국제 금융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 역시 아프리카의 문제는 자금 부족 자체가 아니라, 아프리카 투자를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보는 평가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아프리카 국가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높게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 평가사들은 공개된 기준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신용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차입비용 문제는 실제 개발 투자 여력과 직결된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국가 재정에서 부채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인프라·의료·교육 등 장기 개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든다. 이는 다시 성장 기반 약화와 신용등급 하락 우려로 이어져 높은 차입비용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도 현재의 평가 방식이 아프리카의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부채 부담과 투자위험 완화 방안

아프리카의 높은 차입비용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는 나이지리아다.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아프리카 포워드 서밋 연설에서 2026년 국가 부채 상환액이 116억 달러에 달해, 정부 예상 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채무 상환액인 51억 5,000만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티누부 대통령은 높은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재원이 철강, 섬유, 농산물 가공, 디지털 산업 등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다.

티누부 정부는 연료·에너지 보조금 폐지, 통화 평가절하, 세제 개편 등 대규모 경제 개혁을 추진해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일부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티누부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 성과가 아프리카 국가를 여전히 고위험 차입국으로 보는 국제 금융 시스템 때문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 사례는 개별 국가가 재정을 개선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높은 위험 국가로 평가되면 차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퍼스트-로스 보증(first-loss guarantee)*이 제안됐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아프리카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보증 방식의 도입을 지지하고, 이를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케냐도 이번 서밋의 성과를 G7 의제로 연결하기 위해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예비양-레-뱅 G7 정상회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안이 주요국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아프리카 개발금융 개혁 논의의 진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

* 퍼스트-로스 보증(first-loss guarantee):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이나 보증기구가 첫 손실분을 먼저 부담해, 민간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낮추는 금융 방식

공동투자와 재생에너지 투자로 확대되는 개발금융

프랑스의 아프리카 230억 유로 투자 협력

2026년 5월 11~1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 포워드 서밋(Africa Forward Summit)은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협력 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 행사였다. 과거 프랑스의 아프리카 협력은 원조와 지원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서밋에서는 공동투자와 민간자본 유치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밋 폐막과 함께 총 230억 유로, 약 27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동원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140억 유로는 프랑스 기업이, 90억 유로는 아프리카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는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단순한 원조 대상이 아니라 함께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할 파트너로 보겠다는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서밋이 프랑스어권 국가가 아닌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에서 열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는 그동안 과거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이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케냐에서 서밋을 개최한 것은 아프리카 내 협력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프랑스 해운그룹 CMA CGM은 케냐 몸바사 항만 터미널 현대화에 7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고,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여러 기업의 투자 계획이 제시됐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투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협력의 방식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새로운 파트너십이 의존 관계가 아니라 주권적 평등과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냐 경제학자 왕가리 무이키아(Wangari Muikia)도 아프리카가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제조 단계까지 역량을 키워야 관계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서밋은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관계가 원조 중심에서 공동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프리카가 더 대등한 경제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11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 유입

개발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민간투자 유입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아프리카는 전력 접근성 확대와 기후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의 공적개발원조나 다자개발은행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이러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대표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프리카 포워드 서밋 기간 중 열린 CEO 포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 프랑스와 아프리카 기업들은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을 공개했으며, 프로젝트별 대상 국가와 금액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의향 발표를 넘어, 개발자금 부족을 실제 사업 단위의 민간투자자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은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가 발표했다. 토탈에너지스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20억 달러는 르완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4억 달러는 케냐·우간다·탄자니아의 청정 취사 에너지 사업에 배정했다. 프랑스 국영 전력기업 프랑스전력공사(EDF: Électricité de France)도 2기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EDF는 이미 모잠비크에서 토탈에너지스와 함께 1.5기가와트 규모의 음판다 은쿠와(Mphanda Nkuwa)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카메룬과 말라위에서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 계획도 이어졌다. 잠비아에서는 2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이 제시됐고, 프랑스계 인프라 투자사 메리디엄(Meridiam)은 케냐 키페토(Kipeto)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발전 용량을 200메가와트로 두 배 확대하기 위해 2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케냐항공(Kenya Airways)과 프랑스 에너지 유통기업 루비스에너지(Rubis Energy)는 아프리카 최초의 지속가능 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생산 시설을 케냐에 공동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설은 연간 3만 2,000톤의 지속가능 항공유를 생산할 예정이며,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항공 연료의 현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금융 재편의 시사점

자체 자원·민간자본·공동금융 결합으로 전환

앞서 살펴본 흐름은 아프리카 개발금융이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자원과 민간자본, 공동금융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fDB 연차총회와 아비장 컨센서스는 이러한 방향을 제도적 논의로 확장하는 계기였고, 아프리카 포워드 서밋과 재생에너지 투자 발표는 이 흐름이 실제 투자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아프리카가 보유한 자원과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금융 시스템 사이의 간극이 있다. AfDB의 2025년 아프리카 경제전망(AEO: African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적절한 정책 운용과 재원 누수 차단, 제도적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아프리카가 국내 자원만으로 연간 1조 4,300억 달러를 동원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추산했다. 아프리카는 세계 미개간 경작지의 60% 이상, 글로벌 광물 매장량의 30% 이상, 재생에너지 기술 잠재량의 45%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자원의 부재가 아니라, 이러한 자원을 실제 개발 투자로 연결하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있다.

개발자원 주도권 확대와 구조 전환 과제

NAFAD와 아비장 컨센서스의 핵심은 아프리카 내부의 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외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우선 아프리카 내부에 축적된 저축과 자본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역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는 외부 원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아프리카 내부에서 개발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다.

또한 공적 보증과 낮은 금리의 개발자금을 활용해 민간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방식도 중요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이나 퍼스트-로스 보증은 이러한 흐름과 연결된다. 이는 내부 자본과 외부 민간자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위험을 나누고, 투자 장벽을 낮추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용평가 체계 개혁, 보증 메커니즘의 실제 작동 여부, 아프리카 내부 금융시장 심화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따라서 이번 흐름은 단기간에 완성될 변화라기보다, 아프리카가 개발자원 조달의 주도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장기적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정부·국제기구의 공적 자금과 낮은 금리의 개발자금을 함께 활용해 민간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개발도상국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 방식

참고자료

- AfDB, About the 2026 Annual Meetings, 2026.05.25-29.
- AfDB, 2026 Annual Meetings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26.05.25-29.
-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2026 Annual Meetings to focus on scaling up resource mobilisation for Africa, 2026.04.30.
- AfDB, Launch of the African Economic Outlook 2026, 2026.05.26.
- AfDB, 2026 Annual Meetings: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boosts co-financing to scale up investments across Africa, 2026.04.15.
- AfDB, AfDB's New African Financial Architecture for Development gets off to a bold start at Abidjan meeting, 2026.04.10.
- Reuters, African leaders push credit reforms at Nairobi summit with France, 2026.05.12.
- Reuters, Deals and new partnerships lined up at Africa-France summit, 2026.05.11.
- AP News, France's Macron unveils a \$27 billion investment in Africa at a partnership summit in Kenya, 2026.05.13.
- AP News, Africa secures major clean energy deals as France deepens investment push, 2026.05.13.
- Reuters, Nigeria's Tinubu urges global finance overhaul as debt costs crowd out spending, 2026.05.13.

월간정세 이슈 선정 프로세스

※ 국가 네트워크 관계 분석 목적

국가간 발생한 다양한 월간 이슈에
대한 통합된 정보 제공

데이터 수집원

종합언론지 | 비즈니스 매체 | 관영 매체

웹크롤링

뉴스 DB

45,000 ~ 50,000건/Month

LSTM
(문서분류)

Non Spam 뉴스 DB

키워드
상관분석

국가간 상관 데이터셋

Spam 뉴스 DB

사건사고 기사



재난재해 기사



행사정보 기사



기상정보 기사



생활정보 기사



스포츠정보 기사



상관 값 국가① 국가② 국가③ 국가④ 국가⑤

키워드 ①	0.0	0.1	0.0	0.1	0.0
키워드 ②	0.1	0.0	0.0	0.1	0.1
키워드 ③	0.1	0.7	0.6	0.1	0.1
키워드 ④	0.9	0.2	0.5	0.2	0.5
키워드 ⑤	0.0	0.1	0.2	0.2	0.1

ex) 국가②와 국가③은 키워드 ③과 연결되어 있음

월간정세 이슈 선정 프로세스

① 데이터 수집

주요 신흥국가종합언론지, 비즈니스매체, 관영매체 351건으로부터 정치/경제/사회뉴스 기사들을 일일 수집하고 있음
현지트래픽 비율과 관계자인터뷰를 통해 유력매체유무를 검증하고 있으며 월 기준 45,000~50,000개 데이터를 수집함

(*) 수행사례 '러시아/유라시아 데이터 수집'

No	권역	국가	정보원	URL	현지 트래픽
1	인도· 남아시아	네팔	Aarthiknews	english.aarthiknews.com	94.10%
2		인도	The Economic Times	economictimes.indiatimes.com	89.30%
3		아프가니스탄	Pajhwok Afghan News	www.pajhwok.com/en	24.80%

... (인도·남아시아 : 총 65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러시아 유라시아	몽골	DN	dnn.mn	95.40%
2		러시아	the Moscow Times	themoscowtimes.com	95.26%
3		유라시아	CA-News	ca-news.org	91.97%

... (러시아/유라시아 : 총 69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동남 아시아	베트남	Thanh Nien	www.thanhniennnews.com	93.59%
2		말레이시아	Free Malaysia Today	www.freemalaysiatoday.com	92.25%
3		필리핀	The Manila Times	www.manilatimes.net	89.16%

... (동남아시아 : 총 32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중동부 유럽	슬로바키아	SLOVAK SPECTATOR	spectator.sme.sk	89.52%
2		불가리아	Dnevnik	www.dnevnik.bg	85.21%
3		세르비아	B92	www.b92.net/eng	78.14%

... (중동부유럽 : 총 52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중남미	페루	ANDINA	andina.pe/ingles	97.10%
2		베네수엘라	Today Venezuela	todayvenezuela.com	95.10%
3		콜롬비아	Explica	www.explica.co	91.30%

... (중남미 : 총 32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중동 아프리카	남아공	News24	www.news24.com	91.94%
2		쿠웨이트	Kuwait Times	news.kuwaittimes.net	91.66%
3		사우디아라비아	Eye of Riyadh	www.eyeofriyadh.com	90.57%

... (중동아프리카 : 총 111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월간정세 이슈 선정 프로세스

② 스팸 분류

수집된 뉴스기사 중 하기 유형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머신러닝 방법론을 통해 배제함

머신러닝 모델로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 Model)을 적용 _분류 정확도는 약 89.8%

※ 정확도: (정확히 추출된 결과 정보의 수 / 전체 결과 정보의 수) *

스팸 문서분류 기준

- 사건사고: 교통사고, 살인, 성범죄 등
- 재난재해: 화재, 지진, 홍수 등
- 행사정보: 전시회, 콩쿠르, 엑스포, 월드컵 등
- 기상정보: 일일 기상뉴스 정보
- 비즈니스 및 생활정보: 경영 정보, 생활 노하우 등
- 스포츠 정보: 축구, 배구, 농구, 크리켓 등 정보
- 기타: 수상 및 시상 정보, 유명인사 사망 정보, 단순 증시 등락 정보

③ 키워드 상관 분석

월간정세 이슈 분석은 '국가간에 발생하는 이슈'를 분석하여 **특정 권역 이슈의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가별 네트워크 분석(SNA)을 진행하고 있음

Step 01. 동시출현 단어(Co-occurrence) 데이터셋 만들기

단어의 연결성을 찾기 위해 단어간에 동시에 출현한 데이터셋을 생성함

※ 상관계수: 키워드 a와 키워드 b가 함께 변하는 정도 / 키워드 a와 b가 각각 변하는 정도

Step 02. 국가별 관련 기사 조사

관계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국가별 실제 기사를 조사하고 주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함

No.	매체명	국가	기사 제목
01	Tass	러시아	Putin Signs Law Revoking Nuclear Test Ban Treaty
02	Tass	러시아	US seeking to deploy missile systems banned by INF Treaty — Russian diplomat
03	Tass	러시아	Experts see no alternatives to CFE treaty for decades due to NATO's anti Russian stance
04	CNBC	글로벌	NATO rebukes Russia for withdrawing from post Cold War treaty; Kyiv slams talk of 2024 elections
05	ABC News	글로벌	Putin signs bill revoking Russia's ratification of a global nuclear test ban treaty
06	BBC	글로벌	Putin pulls Russia out of nuclear test ban treaty
07	BBC	글로벌	US, NATO Follow Russia in Dropping Out of Europe Arms Treaty

Step 03. 보고서 시각화